

EU 공급망 실사 지침 이사회 수정안 발표

- 규제가 초안 대비 일부 완화되었으나, 아직 절차 남아 -

2020. 4. EU집행위는 EU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계획을 거론한 이후 전 산업 분야에 걸쳐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지침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2022. 2. 초안이 발표되었고 2022. 11. EU의회가 수정 초안을 제시한 뒤 2022. 12. EU이사회에서 재수정하여 일반 합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위 지침은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세계화가 진행되며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공급망이 전세계를 거미줄처럼 엮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지역에서의 공급망에서는 각종 인권환경 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들은 공급망 실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법제화까지 진척시켜 기업들이 자신의 공급망에 연결된 협력사의 인권 및 환경 등에 대한 침해여부를 조사·시정·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강력한 제재를 구비한 법률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EU의회는 2021. 3. 기업의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에 따라 EU집행위가 2022. 2. 23. "기업 지속가능성 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EU의회는 2022. 11. 집행위원회가 발표하였던 초안 내용을 일부 개정한 수정 초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 12. EU이사회에서 다시 재수정을 거친 안이 일반 합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주요 지역 공급망 실사법제화 동향 관련 참고(2022. 09 뉴스레터) [공급망 실사 법제화 관련 동향](#)

* 산자부 발표 공급망실사 관련 참고 자료(2022. 12 뉴스레터)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 주요 내용

EU이사회가 일반 합의를 통해 채택한 안에서 EU 집행위 초안 대비 수정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역	2022. 2. EU집행위 초안	2022. 12. EU이사회 수정안
범위 (EU역내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1) 500명 이상 고용 시, 회계연도 기준 1.5억 유로 초과 전세계 매출 또는,(2) 250명 이상 고용 시, 회계연도 기준 4,000만 유로 초과 전세계 매출, 매출액 50% 이상이 고위험산업군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일하나, 고위험산업군 매출액 50% 이상 이 아닌, 2,000만 유로 이상의 전세계 매출액으로 변경

범위 (EU역외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회계연도 기준 1.5억 유로 초과 EU내 매출 또는, - (2) 회계연도 기준 4,000만 유로 초과 EU내 매출액, 전세계 매출액 50%이상이 고위험산업군¹에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하나, 고위험산업군 매출액 50%이상이 아닌, 2,000만 유로 이상의 EU내 매출액으로 변경
범위 관련 추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수정안에서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 발효 후 2년간 EU회원국가 별로 법률제정 등을 하는 기간(Transposition Period)이후 1년 추가 경과 후 지침이 완전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EU역내 기업으로서 1,000명 이상 고용하고 3억 유로 초과 전세계 매출을 가지거나, 또는 EU역외 기업으로서 EU내 매출액이 3억 유로 초과하는 기업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 추가 - EU회원국은 지침 발효가 이루어지고 (1)의 기업에 대해서는 4년 후 지침 적용, (2)의 기업에 대해서는 5년 후 지침 적용
가치 사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사슬(value chain)이라는 용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사슬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기업활동 사슬(chain of activities)로 변경하였으며 관련 정의 일부 변경 - 실사 범위와 관련하여 다운스트림(downstream)부분 축소
금융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무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업무 규제는 EU회원국마다의 결정에 따름
기후 변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1)의 기업들의 사업 모델과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및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지구 온난화 방지와 양립가능하게 할 계획 강구 의무화 - EU회원국 기업 내 임원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의무이행에 따라 성과급이 영향을 받게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1)의 기업들이 수립하는 계획 관련, 실천행위와 금융 및 투자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EU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2050년 내 기후중립 달성 목표 내용 및 EU회계지침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규정 등에 따른 석탄·석유·가스 관련 사업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 추가 - 임원 성과급 관련 조항 삭제
임원 의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내 기업들 임원들에게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실사 관련 행위들을 감독하고 부작용 등에 대응할 회사 전략을 확보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고, 조항의 주 내용은 기업의 정책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부분으로 통합

¹ 섬유가죽·의류신발 및 관련 제품 제조와 도매무역, 농업임업수산업, 식음료제조업, 광물업 등

3. 시사점

EU이사회의 2022. 12. 수정안은 EU집행위에서 2022. 2. 에 발표하였던 초안 및 2022.11.에 발표되었던 EU의회 수정안보다 규제가 완화된 것으로 공급망 실사에 대비가 필요한 수많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러한 EU이사회의 수정은 EU회원국들의 기업의 자율성, 산업 위축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우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아직 더 개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2023. 5. 경 유럽의회가 다시 한 번 입장을 정할 예정이고, 유럽의회와 EU집행위, EU이사회 3자 협상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U이사회의 수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이지만,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련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공급망 실사법 입법 동향을 주시하고 기업의 대응방향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ESG센터는 막연한 ESG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신승국

미국변호사

T. (+82) 2 6182 8502

E. synn@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

양희

컨설턴트

T. (+82) 2 6003 7674

E. hyang@yoonyang.com

김현지

컨설턴트

T. (+82) 2 6003 7470

E. khji@yoonyang.com